

상사뱀 설화의 업(業) 설화적 고찰

김순재*

- I. 머리말
- II. 상사뱀 설화의 자료와 구조
- III.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업(業) 사상
- IV. 상사뱀 설화의 업(業) 설화적 성격
- V. 맺음말

<국문초록>

불교에서 뱀은 윤회와 업(業)의 상징으로서 전생에서 악업을 많이 쌓은 인간이 주로 환생하는 짐승이다. 이에 불교의 수행자인 중이 죽어 상사뱀이 되는 설화는, 중이 색욕으로 악업을 쌓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불교의 업(業) 설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의 중이 주인공인 불교 상사뱀 설화는 민간에 전파되어 등장인물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불교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주인공인 민간 상사뱀 설화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상사뱀 설화는 불교의 포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서술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도승들이 불계를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상사뱀 설화는 수도승들에게 윤회전생을 주지시켜 색욕과 관련한 악업을 쌓지 않게 하고, 불도를 닦아 선업을 쌓는 수행에 정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둘째, 대중에게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쉽게 이해시켜 포교를 쉽게 하고자, 또한 재미있게 포교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승려들은 대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의 업(業) 사상과 윤회 사상을, 색욕이란 악업으로 상사뱀이 되는 설화를 통해 쉽게 풀어 전달함으로써 포교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재미있고 신이한 내용의 설화를 통해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대중들이 불교에 관심 갖도록 상사뱀 설화를 이용했을 수 있다.

셋째, 신이한 내용의 설화를 통해 부처의 영험성을 드높여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도를 확보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승려들은 청평사 전설을 구연하며 불가능했던 상사뱀 퇴치를 부처의 영험함을 통해 해결했으므로, 공주의 공덕 행위와 같이 대중들도 불교를 믿고 공덕을 쌓으면 기원하는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포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상사뱀은 불교의 오욕(五慾) 중 색욕으로 악업을 쌓아 환생하는 존재이며, 이로 인해 상사뱀 설화를 불교의 업(業) 설화로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핵심어: 상사뱀, 상사바위, 청평사, 업(業), 업사상, 윤회, 색욕, 오욕(五慾), 불교, 『용재총화』

1. 머리말

상사뱀 설화는 외사랑하던 사람이 죽어 뱀이 되어 연모하던 사람에게 붙어 떨어지지 않으므로써, 연모하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¹⁾ 뱀이 되는 사람은 각편에 따라 남녀 모두 나타나며, 주로 전근대 시대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연모하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상사병으로 죽고 뱀으로 환생한다.

상사뱀 설화는 다방면으로 연구되었다. 그중 본격적으로 상사뱀 설화에 집중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용덕은 강원도 춘천시의 청평사 연기설화에 얽힌 상사뱀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력, 그리고 연행현장과 제보자에 따

1) 강진옥, 『상사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1』, 국립민속박물관, 2012, 346면.

른 설화의 전승유형을 살폈다.²⁾ 또한 김용덕은 상사뱀 설화의 구조를 살피고,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상사뱀의 유형을 나누어 유형별 의미를 해석하였다.³⁾ 강진옥은 상사뱀 설화에서 사회적 규범으로 좌절된 욕망과 규범의 관계양상에 주목하여, 상사뱀 설화가 지향하는 의미구조를 고찰하였다.⁴⁾ 강미정은 상사뱀 설화가 문학치료 현장에서 우울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작품 서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⁵⁾ 또한 강미정은 일방적 사랑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사뱀 설화와 영화 <페인티드 베일>을 비교하여, 일방적 사랑의 전개와 파국 양상을 살폈다.⁶⁾ 카이미는 한·일 상사뱀 설화를 비교하여 동이점을 파악하고, 동이점이 나타난 이유를 문화사적 배경을 통하여 분석하였다.⁷⁾ 강성숙은 여성형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색수열리티의 위계화 방식과 성 정치의 맥락을 파악하였다.⁸⁾ 또한 강성숙은 파국형 상사뱀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 간의 연결망을 파악하고, 그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⁹⁾ 송영숙은 한·일 상사뱀 설화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동이점을 파악하여 한·일 상사뱀 설화의 특성을 비교하였다.¹⁰⁾ 이주라는 상사뱀 설화의 근·현대 이후 변용 양상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현대사회에서 상사뱀 설화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였다.¹¹⁾ 김정애는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상사뱀 설화를 읽은 감상자들의 반응을 살피고, 상사뱀 설화를

-
- 2) 김용덕, 『淸平寺緣起說話考』, 『한국언어문화』 제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8.
 - 3) 김용덕, 『<相思 뱀說話>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 『한국언어문화』 제1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 4)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 5) 강미정, 『우울증 서사로 보는 <콩쥐팍쥐>·<상사뱀>·<고분지통>』,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 6) 강미정, 『상사뱀 설화와 영화 <페인티드 베일>의 비교를 통해 본 일방적 사랑의 문제』, 『문학치료연구』 제2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 7) 카이미,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8) 강성숙, 『性 政治로 본 상사뱀 설화-여성형 상사뱀 설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 9) 강성숙, 『연결불가능한 신체, 상사뱀의 정치지형-파국형 상사뱀 설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문논집』 제53집, 이화여대문화회, 2021.
 - 10) 송영숙, 『한일 상사뱀(想思蛇) 설화의 비교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0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14.
 - 11) 이주라, 『근·현대 상사뱀 모티프의 변화와 한국 공포물의 특징-1930년대와 1960년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4집 제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

공감적으로 이해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¹²⁾ 조은상은 상사뱀 설화를 통해 친밀감 발달의 어려움에 내재된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친밀감의 형성 문제를 이해해보았다.¹³⁾ 한양하·장시광은 남명이 등장하는 상사뱀 설화를 토대로 여성의 욕망에 대처하는 남명의 태도와 관계 맺기에 따른 남명의 남성성을 살펴보았다.¹⁴⁾ 또한 한양하는 선행 연구를 확장하여 상사뱀 설화에서 여성의 욕망에 대처하는 남성인물의 남성성을 젠더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남성 젠더에 관한 민중의 시각을 살펴보았다.¹⁵⁾ 이지영은 화자의 성별에 따라 상사뱀 설화의 구연 양상을 비교한 뒤, 그 차이를 성적 욕망에 관한 남녀의 인식 차이로 해석하였다.¹⁶⁾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상사뱀 설화를 유형 분류 및 서사구조 분석, 문학치료, 타 장르와의 비교, 한·일 비교, 젠더, 성적 욕망, 현대적 변용 등으로 연구하였다. 본고는 상사뱀 설화를 불교적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대체로 김용덕(2000)과 강진옥(2000)을 위시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상사뱀이 되는 이유가 신분의 차이와 규범으로 인해 좌절된 성적 욕망과 원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상사뱀이 되는 이유로 불교의 업(業) 사상 및 윤회 사상을 꼽고자 한다.

불교에서 중생의 영혼은 전생에 쌓은 선업(善業)과 악업(惡業)에 따라 윤회(輪廻)를 거친다. 이는 해탈하여 윤회가 없는 극락에 갈 때까지 반복된다. 전생에 악업을 많이 쌓은 인간은 후생에 짐승으로 태어나 환생할 때까지 인고의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불교에서 악업을 많이 쌓은 인간이 주로 환생하는 짐승은 구렁이이다.¹⁷⁾ 이러한 업(業) 사상 및 윤회 사상은 불가에서 포교를 목적으로 만들었든, 민간에서 자연 발생한 것이든 관련 설화

12) 김정애, 『상사뱀 설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통해 본 문학치료적 공감의 방법과 그 의의』, 『문학치료연구』 제5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13) 조은상, 『성인초기 친밀감 발달과 관련된 설화의 가치-설화 <여우구슬>과 <조월천과 상사뱀>, <신립장군과 처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6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14) 한양하·장시광, 『상사뱀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제65집,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15) 한양하, 『남성성에 따른 여성 욕망의 수용 양상과 의미-〈상사뱀〉 설화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34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21.

16) 이지영,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 『여성문학연구』 제53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7) 김순재, 『업神의 용어 고찰』, 『어문연구』 제92집, 어문연구학회, 2017, 157면.

를 생성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업(業) 설화는 인간이 전생에서 쌓은 악업 때문에 축생도¹⁸⁾에서 구렁이로 환생하는 즐거리를 갖는다.¹⁹⁾

불교에서는 식욕·색욕·재물욕·명예욕·수면욕을 오욕(五慾)이라 칭한다.²⁰⁾ 상사뱀은 성적 욕망, 즉 색욕 때문에 탄생하는 존재이다. 본고는 전생에 쌓은 색욕이라는 악업으로 상사뱀에 걸려 죽은 인간이 구렁이로 환생한다는 관점으로 상사뱀 설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업(業) 사상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상사뱀 설화의 업(業) 설화적 성격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II. 상사뱀 설화의 자료와 구조

상사뱀 설화의 자료는 김용덕(2000)²¹⁾·강진옥(2000)²²⁾·이지영(2021)²³⁾의 연구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용덕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41편의 상사뱀 설화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강진옥 또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41편의 상사뱀 설화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지영은 앞선 두 연구에서 빠진 자료를 추가하여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47편의 상사뱀 설화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세 연구자가 정리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상사뱀 설화 외에, 추가로 『용재총화』 등의 문헌에 실린 상사뱀 설화와 필자가 채록한 상사뱀 설화 또한 연구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 상사뱀 설화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채록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광포설화이다. 상사뱀 설화는 전설과 민담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거의 민담으로 전승되나, 청평사 전설·상사바위 전설·인물 전설 등이 전설로 전승되고 있다.

18) 중생은 전생의 업(業)에 따라 천상도·인간도·아수라도·축생도·아귀도·지옥도 등 육도(六道)의 세계를 윤회한다. 이 중 축생도는 짐승으로 태어나는 세계를 말한다.

19) 김순재, 「업(業) 설화에 나타난 업神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1, 164~165면.

20) 윤희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89, 616면.

21) 김용덕, 「〈相思 甍說話〉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 353~354면.

22)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118~122면.

23) 이지영, 앞의 논문, 198~200면.

상사뱀 설화의 구조는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짝사랑한다(간혹 신분의 차이가 없기도 함).
- ② 짝사랑과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에 상사병에 걸린다.
- ③ 상사병을 앓다가 죽어 구렁이로 환생한다.
- ④ 전생에 짝사랑했던 상대의 몸에 들러붙는다.
- ⑤ 뱀을 떼려야 뗄 수 없고 죽어도 소용없다.
- ⑥ 뱀이 붙은 짝사랑 상대는 하루하루 말라간다.
- ⑦ 어떠한 방법으로 몸에서 뱀을 떨치고자 한다.
- ⑧ 성공하여 뱀에게서 해방된다. 또는 실패하여 뱀과 함께 죽는다.

상사뱀이 되는 사람은 각편에 따라 남자 또는 여자로 나타나며, 뱀이 되어 짝사랑 상대를 휘감는가 하면 남자 상사뱀의 경우 여근(女根)에 꼬리로 뿌리를 박기도 한다. 상사뱀을 퇴치하기 위하여 폭력을 쓰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여, 퇴치에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한다. 또한 짝사랑 상대가 위로해주어 상사뱀이 물러나기도 하고, 미리 방비하여 상사뱀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처럼 상사뱀 설화는 크게 위의 구조를 따르며 각편에 따라 약간씩의 소재·화소 차이가 있다.

짝사랑하는 사람이 상사뱀이 되는 이유로, 기존의 논의에서는 신분의 차이와 규범으로 인해 좌절된 성적 욕망과 원한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상사뱀이 되는 이유를 불교에서 찾고자 한다.

불가에서는 업을 쌓으면 뱀으로 환생할 확률이 제일 커요. 그래서 뱀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뱀은, 절대 뱀은 건들지 않아요. 조용히 갖다가 따른 데다 갖다 놓지. 그 뱀, 뱀이라는 거는 사람이 환생했을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는 거예요.²⁴⁾

불교에서 뱀은 윤회를 상징하므로 인도에서 뱀은 제 꼬리를 입으로 문 형태로 그려진다.²⁵⁾ 위 구술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뱀은 윤회와 업

24) 이도재(남, 51, 비암사 사무장),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2016.06.04., 필자 채록.

(業)의 상징으로서 전생에서 악업을 많이 쌓은 인간이 주로 환생하는 짐승이다. 이러한 업(業) 사상 및 윤회 사상으로 인해 탄생한 업(業) 설화는 사람들 사이에 전승된다.

대체로 불교의 오욕(五慾) 중 하나인 재물욕, 즉 탐욕 때문에 뱀이 되는 업(業) 설화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남은 다른 오욕(五慾) 중 어떤 악업으로든 뱀이 되는 업(業) 설화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전생에 쌓은 색욕이라는 악업 때문에 중이 죽고 나서 뱀으로 환생하는 설화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색욕을 멀리해야 할 불교의 수행자인 중이 상사뱀이 되는 설화는, 중의 파계를 경계하고 수행을 돕기 위한 불교의 업(業) 설화일 가능성이 있다.

III.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업(業) 사상

1. 불교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업(業) 사상

이 절에서는 사찰연기설화 등의 불교설화와 민간설화에서 중이 색욕 때문에 죽고 나서 상사뱀으로 환생하는 설화들을 살피고자 한다.

옛날 금강산에 수도하던 스님이 중국 공주가 천하일색이라는 말을 듣고 한번 보고 싶어서 중국으로 갔다. 궁궐 밖에서 서성이던 스님은 첩자로 오인받아 잡혀 죽어서 상사뱀이 되었다. 상사뱀은 공주가 잠자는 사이에 몰래 공주의 몸에 붙었다. 상사뱀이 붙은 공주는 궁에서 쫓겨나 방랑하다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어서 고려로 왔다. 그런데 금강산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소양강 오봉산으로 갔다. 절 구경을 하려면 몸을 깨끗이 해야 하기에 공주는 상사뱀에게 잠시 떨어져 달라고 부탁했다. 공주는 폭포수(공주탕)에서 몸을 씻고 절로 향했다. 공주는 법당에 있는 것다 만 가사(袈裟)를 들고서 한 땀, 한 땀 뜨며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부처님께 하소연했다. 그때 별안간 마른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쳐 뿔리를 들고 기다리던 상사뱀을 죽였다. 공주가 중국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 상사뱀이 떨어진 내력과 사찰이 낡았음을 알리니, 황제가 돈을 보내어 절을 중창하

25) 김용덕, 『<相思 뱀說話>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 361면.

게 되었다. 변이형으로 공주를 기다리던 뱀이 공주를 찾아 절로 왔으나, 절 문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 회전문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²⁶⁾

위 인용문은 청평사 전설로, 상사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닌 죽임을 당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2장에서 살펴본 상사뱀 설화의 구조와 일치한다. 다만 사찰연기설화이기 때문에 상사뱀에게서 해방된 공주로 인해 절이 중창되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중이며, 신분이 높은 사람은 중국의 공주이다. 각편에 따라 신분이 낮은 사람은 중·평민 청년·도편수 등으로 등장하며, 공주의 국적은 원나라·송나라·당나라 등으로 나타난다. 공주가 상사뱀을 떼어내기 위해 가사불사(袈裟佛事)를 하며 부처에게 빌자 뱀은 벼락을 맞고 죽는다. 공주의 정성이 부처에게 닿았고, 부처의 영험으로 인해 상사뱀을 물리쳤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서는 불교의 영험설화적 요소가 드러난다.²⁷⁾

이 전설은 불교설화이기 때문에 불교의 기본 교리인 업(業) 사상과 윤회 사상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전생에서 공주에게 색욕을 느껴 악업을 지니고 죽은 중이 뱀으로 환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은 뱀이 된 후에도 색욕 때문에 공주의 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변이형 전설에서 뱀이 회전문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도 업(業) 사상 및 윤회 사상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의 회전문은 문이 빙빙 돈다는 의미의 회전문(回轉門)이 아닌 회전문(廻轉門)이다. 회전문(廻轉門)의 ‘회(廻)’는 윤회(輪廻)의 ‘회(廻)’를 의미함으로써, 회전(廻轉)이란 전생의 업(業)에 따라 생을 반복하는 윤회를 말한다. 따라서 회전문(廻轉門)은 중생들에게 윤회를 깨우치게 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뱀이 회전문을 넘어 공주에게 다다르지 못한 것은 다시 윤회의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용재총화』에는 중이 상사뱀이 된 설화가 두 편 실려 있다. 권4 <홍재주와 여승>과 권5 <보광사 승려>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6) 김용덕, 『청평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2』, 국립민속박물관, 2012, 726면. 청평사 전설은 ‘김용덕의 논문 『淸平寺緣起說話考』의 부록 26~32면’과 ‘《한국구비문학대계》 2-2의 387~391면, 709~711면’ 등에도 채록되어 있다.

27) 김용덕, 『淸平寺緣起說話考』, 19면.

홍재추(洪宰樞)가 아직 현달(顯達)하기 전에 길가다 비를 만나 작은 동굴(洞穴)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굴속에 짐이 있고 한 여승(女僧)이 있었다. 나이는 一七·八세 쯤 되고 얼굴과 맵시가 어여쁘게 단정하게 홀로 앉아 있었다. (중략) 공(公)이 드디어 여승과 더불어 즐거움을 풀고, 약속하기를 “어느 해 어느 달에 너를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여승이 그 말을 믿고 매양 그 기일만 기다렸더니 기일이 지나도 마침내 아무런 소식이 없으므로 드디어 병이 되어 죽었다. 공이 뒷날 남방 절도사(南方節度使)가 되어 진(鎭)에 있었다. 하루는 도마뱀 같은 작은 생물이 공의 요 위에 기어 다녔다. 공이 아전을 시켜 밖에 던져 버리게 하였더니 아전이 죽여 버렸다. (중략) 그 뒤부터는 오지 않는 날이 없으며 올수록 날마다 점점 큰 것이 들어와서 마침내는 큰 구렁이가 되었다. (중략) 공은 정신이 점점 흐려지고 얼굴빛이 파리하여지더니 마침내 병이 들어 졸(卒)하였다.28)

홍재추가 벼슬하기 전에 어느 동굴에서 여승을 만난다. 여승과 연을 맺은 홍재추는 후일 여승을 데려가기로 기약한다. 하지만 여승이 아무리 기다려도 홍재추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여승은 상사병에 걸려 죽는다. 후일 남방절도사가 된 홍재추가 처소에 있는데 작은 뱀이 요 위를 기어 다닌다. 홍재추는 아전을 시켜 뱀을 죽인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날마다 찾아오는 뱀은 점점 크기가 커진다. 그리고 마침내 커다란 구렁이가 찾아온다. 뱀은 상사병에 걸려 죽은 여승이 색욕이라는 악업으로 환생한 것이다. 여승은 전생에 불가의 제자임에도 이성을 흠모하고 정을 통해 과계한 죄로 벌을 받아 후생에 축생인 구렁이로 환생한다. 죽어 구렁이가 되어서도 여승은 홍재추를 향한 색욕을 버리지 못하여 그를 계속하여 찾아온다. 결국 홍재추는 구렁이에게 시달리다 쇠약해져 죽게 된다.

나의 외구(外舅) 안공(安公)이 임천(林川)의 수령이 되었을 때에 보광사(普光寺)의 중으로서 대선사(大禪師) 아무개라는 자가 있었다. (중략) 중이 일찌기 마을의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내를 삼고 남몰래 다녔다. 하루는 중이 죽어서 뱀이 되어 아내의 방에 들어왔다. 낮에는 단지에 들어가 있고, 밤에는 아내의 품에 들어간다. 그 허리를 감고 머리를 아내의 가슴에 의지한다. 꿈지 사이에 양경(陽莖)과 같은 혹이 있어서 그 애무(愛撫)함이 옛날의 평상시와 같다고 하였다. (중략)

28) 성현, 남만성 역, 『용제총화』, 대양서적, 1973, 139면.

외구가 꾸짖기를 “아내를 못 잊어 뱀이 되다니 중의 도리가 과연 이러한가?” 하였더니 뱀이 머리를 움츠리고 들어가 버렸다. (하략)²⁹⁾

중은 생전에도 사랑을 이루었으며, 죽어서도 이를 잊지 못해 뱀이 되어 아내와 교접한다. 이에 따라 위 설화에는 신분의 차이와 규범으로 인해 좌절된 성적 욕망과 원한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로지 색욕만으로 상사뱀이 된 것이다. 따라서 중이 전생에 불계(佛戒)를 어기고 여색에 빠진 죄로 악업을 쌓아 뱀으로 환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 낙산사 가먼은 흥, 흥련, 흥련암이라는 디가 있다. (중략) 고기에 중이 이롱게 술여, 술집여자를 이롱게 좋아해가주구 고 술집여자하구 자 이롱기 바 구렁이가 돼서 이렇게 엉켜서 있다. (중략) 물에 있는 걸 뵈, 이롱게 뵈다 그게 가서 보면은. (하략)³⁰⁾

이 설화의 등장인물은 중과 술집 여자로 신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종교적 계율만이 사랑의 걸림돌이다. 중은 계율을 어기고 색욕을 탐했기 때문에 악업으로 인해 구렁이로 환생한다.

그전에 어- 한 중이 동 및 냥, 동냥을 달라고 왔어. (중략) 이 처녀가 아무도 집에 사램이 없어서 문을 안 열고 문구영으로 요래 내다 봤다 말이라. (중략) 이 중이 고마 상사병이 걸렸던 모양이라. 고마 이 중이 가가지고 구리가 났어. 구리가 대 가지고 죽어, 죽어서 구리가 대 가지고 그래 죽고. (중략) 처제 고마 몸에, 크기해 가지고, 척 감아 가지고, 모가지 딱 바치고, 고마 입을 딱 벌리고 눈물받아 묵는 기라. 눈물받아 묵은께, 이 처녀가 꼬지꼬지 마르네. (중략) 아무 짓을 해도 안 떨어져. (중략) 세상없는 상사푸리를 해도 안 떨어져, (중략) 그래 머머 죽었다 가는데 머. 둘 다 죽었어. (하략)³¹⁾

동냥을 간 중이 그 집의 처녀를 보고 상사병에 걸린다. 중은 불교의 수행

29) 위의 책, 186~187면.

30) 박석자(여, 83), <죽어 구렁이가 된 중>,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로31번길 30, 2016.07.08., 필자 채록.

31) <상사병 걸린 중>, 《한국구비문학대계》 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65~167면.

자로서 여색을 접하면 파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병을 방지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만다. 불계(佛戒)를 어기고 색욕에 빠져 죽은 중은 그 악업으로 축생의 벌을 받아 구렁이로 환생한다. 벌을 받아 구렁이로 환생했음에도 중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처녀를 향한 색욕에 그 집에 찾아가 처녀를 뽕뽕 휘감는다. 처녀에게서 구렁이를 떼어내려고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처녀 또한 죽고 만다. 구렁이가 된 중은 처녀를 자신이 소유하고 싶고 남에게 빼앗기기 싫어서 강한 집착을 일으킨다.

2. 민간 상사뱀 설화에 나타난 업(業) 사상

이 절에서는 민간설화에서 일반인이 색욕 때문에 죽고 나서 상사뱀으로 환생하는 설화들을 살피고자 한다.

이웃집 과부를 보고 병이 났네. 이웃집 과부에도 병이 났어. 과부가 어찌 예쁘던지 총각이. 즈그엄매하고 둘이 산디 근디 아 총각놈이 무단시(靛히) 보타(상이 안찌고 말라가다). 병이나. 즈그엄매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하닝개로, 사실을 가르쳐 주거든. “저 이웃집 과부가 참 예뻐 반달인디, 저 여자하고 나하고 하룻 저녁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중략) “가만히 있자, 당신 아니면 내 자식이 죽어. 죽은디 산 사람을 죽이느니 한번 만나보면 안 좋겠냐?” (중략) 아 과부가 그만 뺨(얼굴)을 한 보래기(한 주먹) 썰려(때려) 버리네. “아 기구한 놈이라고. 네가 나에 대해서 어쩡다고 하니 와서 보니 어떠냐?” 그래가지고 낫박을 세워버렸어(면박, 창피를 주었대). 아 그러니 이놈이 와서 연해, 와서 연해 앓다가 죽어버렸어. 죽은개 비암(뱀)이 되더라등만(되었다더군). 비암이 돼, 비암이. 그래가지고 과부를 칭칭 감고 죽어버리더래.³²⁾

총각이 이웃집 과부를 보고 상사병이 난다. 어찌할 도리가 없이 총각은 상사병이 심해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어머니가 사실을 알고 과부에게 청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총각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한다. 과부는 총각을 보자마자 따귀를 날리며 면박을 준다. 사랑을 이루지 못한 총각은 내내 앓

32) <과부를 짝사랑하다 죽은 총각이 구렁이가 되다>, 《한국구비문학대계》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60~162면.

다가 죽어 구렁이로 환생한다. 구렁이는 과부에 대한 욕망 때문에 과부를 찾아가 칭칭 감는다.

총각이 구렁이가 되는 표면적 원인은 ‘한’이다. 그리고 ‘한’을 품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과부를 향한 ‘성적 욕망’을 해소하지 못해서이다. 결국 총각은 성적 욕망, 즉 색욕으로 인해 구렁이가 된다. 이는 중이 색욕으로 인한 악업 때문에 백으로 환생하는 불교의 업(業) 설화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중이 주인공인 불교 상사뱀 설화가 민간에 전파되어, 그 영향으로 불교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주인공인 민간 상사뱀 설화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전에 하님이라고 있었어. 있는디 서울로 과거를 갔어. 참 서울 가다가 어디 서 주막 만나면 저물면 자고 안가? 하루저녁으 주막으 들러 잔 것이 홀어머니뉘든 개버. 어떻게 그 여자하고 부부가 되얏어. (중략) “서울 올라 가시면 말여 과거는 꼭 헐 것인게 말여 감서 나를 찾아갖고 데리꼬 가시오.” “오냐 그러마.” 약속허고 가서 서울가 과거를 헐어. (중략) 그 여자는 꼭 남편이 과거를 히가지고 감서 나를 데리꼬 갈턴디 기양 갔고나. 그리고 강 고놈이 강 뱀이 들어가지고 죽었어. 죽어서 강 큰 구렁이가 되얏어. (하략)³³⁾

과거를 보러 가던 남자가 주막에 들렀고, 주막의 여자와 부부의 연을 맺는다. 남자는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 여자와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하였다. 하지만 남자는 과거를 보고 주막에 들르지 않았고, 여자는 돌아오지 않는 남자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 죽어 큰 구렁이가 된다. 남자에 대한 과도한 색욕 때문에 여자는 축생의 벌을 받는다.

한 집이 대성가집이. 참 머 아들도 못 놓고 내두룩 이래 있다가, 그래 어디 가 나무 밑에 가가 자식 한 키 빌어가주, 불로 혀가 빌어가 났다. 그래 그 아들로 나 놓이 재주도 참 원칸. 키와 보이, 인물도 좋고. (중략) “그래 우리 집 여식이 하나 그래 있는데, 그게 어찌다 그래 대령이로(도련님을) 어에 봤는지. 보고 마 그 중으로 뱀이 들어가주, 저래 누버가 있는데. 원을 하기로, 대령을 한 분만 보

33) <죽어 구렁이가 된 여인의 한>, 《한국구비문학대계》 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50~153면.

면, 그 칸다고.” (중략) 그래 거 들어갔다. 들어가이, 이 마 마 사람은 간 데도 온 데도 없고, 우에 됐게나, 구렁이(구렁이가) 마 돼가 방아 한 방 돼가 이래, 있그덩. 이래가 눈을 깜작 깜작 그리며, 눈에 눈물을 뚜덕 뚜덕 흘리며.[청중: 그래 죽어가 그렇다.] (하략)³⁴⁾

가난한 집의 딸이 대성가문의 도령을 보고 상사뱀을 앓는다. 딸의 아버지의 청을 받은 도령은 앓아 누운 딸에게 간다. 그런데 사람은 안 보이고 구렁이가 한 마리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상사뱀을 앓던 딸은 결국 죽고 말았고, 색욕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에 악업을 쌓고 벌을 받아 구렁이로 환생하고 만다.

이러한 상사뱀 설화는 유명한 인물에게 전파되어, 유명 인물을 설화에 끌어들인다. 이는 유명 인물의 위인성을 높이고, 그 위인의 공신력에 기대어 설화의 신이성과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옛날 잊적 이순신 장군 소싯때 공부할 시의 이야깁니다. (중략) 이순신장군이 고 공부하러 다니는 고 새 주막에 참 무남독녀 계집아가 술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공부하러 오르내리는 걸 보고, 이 계집아가 과년이 찼던가, 이순신 장군한테 참 그 마음을 뚫던 모양이지. 이래가지고, 옛날엔 술장사를 하만 참 천한 사람이고, 이순신장군은 그 양반의 집에서 대가의 공부를 하는데. (중략) 그래 맘에만 있고 말은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중략) “저기(저것이) 죽고나서 구렁이가 돼가지고, 방 하나, 커단(커다란) 구렁이가 돼가 있습니다.” (하략)³⁵⁾

이순신이 어릴 적 공부하러 다니던 때, 주막집 딸이 이순신을 보고 상사뱀에 들고 만다. 딸은 자신은 술장사를 하는 집안의 천한 신분이고, 이순신은 양반의 고귀한 신분이어서 사랑을 표출하지 못하고 끄끙 앓기만 한다. 결국 딸은 말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만다. 그리고 딸은 이순신에 대한 색욕 때문에 축생의 과보를 받아 구렁이로 환생한다.

34) <상사뱀으로 죽은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 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414~417면.

35) <이순신장군과 상사뱀 걸린 처녀>, 《한국구비문학대계》 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316~318면.

(상략) 술집이 그 주인 딸이 좋은 딸 하나 이쁜 딸이 하나 있어. (중략) 인제 강감찬이가 총각 때 미혼 때 일이던 거이지. 아이 가시내가 기양 고리 맴이(마음)이) 풀렸다 그 말이여. 풀려가지고, 그러나 말을 못 해. 가시내가 말을 못 해. 강감찬한테 말을 껌히(감히) 못 한단 말이여. 그래 쪽 사는디, 아이 가시내가 한 번 아프더마는 딱 드러누서(드러누워서) 인자 못 살게 아퍼. 완전이 아퍼분다 말이여. 못 살게 돼. (중략) 죽고 난게는 큰 구렁이가 돼갖고는 사람처럼 해갖고는 방에 가 딱 들눴다 말이여. (중략) 이 양밤이 직접 뛰어 들어가더만 구렁이를 딱 아듬어 보듬고, “진짓 말이나 한 번 해보지, 뒤져부렀나?” 아, 그란께 구렁이가 어디로 가부리고 사람만 남겨부려. 그래서 송장이 돼서 장살 지냈어. 구렁이는 인자 가부리고. 강감찬이가 한 번 보듬어 준께, 기양 구렁이가 인자 그 원기(怨鬼)가 없어져부렀어.³⁶⁾

강감찬을 보고 사랑에 빠진 술집 딸이 강감찬에게 말은 못하고, 상사병이 들어 몸져눕고 만다. 결국 상사병으로 죽은 처자는 강감찬에 대한 색욕 때문에 구렁이로 환생한다. 강감찬이 다가가자 구렁이는 강감찬을 제 몸으로 꼭꼭 묶는다. 강감찬이 구렁이를 보듬어 주자 구렁이는 사라지고 여자의 시신만 남는다. 이는 처자의 욕망이 풀린 결과이다. 욕망으로 인해 악업을 쌓아 구렁이가 된 여자는 강감찬으로 인해 욕망이 풀리자 악업 또한 벗게 된다. 그리고 여자는 구렁이라는 업신(業身)을 벗고 다시 환생하고자 윤회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IV. 상사뱀 설화의 업(業) 설화적 성격

이제 상사뱀 설화를 불교적 시각에서 바라본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는 상사뱀이 불교의 오욕(五慾) 중에서도 색욕에 의해 악업을 쌓아 탄생하는 존재이며, 이로 인해 상사뱀 설화가 업(業) 설화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여러 상사뱀 설화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상사뱀 설화에는 불교의 업(業) 사상과 윤회 사상적 요소가 나타나 있다.

특히 전생에 색욕이 매우 강한 중이 죽고 나서 상사뱀이 되는 설화는 불

36) <강감찬과 상사뱀>, 《한국구비문학대계》 6-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45~446면.

교의 업(業) 설화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불교에서 뱀은 윤회를 상징할 만큼 악업을 쌓으면 환생할 확률이 높은 짐승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수행자로서 그 누구보다 색욕을 가장 멀리해야 할 중이, 색욕으로 인해 뱀으로 환생하는 상사뱀 설화는 이러한 업(業) 사상과 윤회 사상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중이 상사뱀이 되는 설화는 중의 파계를 경계하고 수행을 돕기 위한 불교설화로서 활용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색욕 관련 불교 업(業) 설화가 민간에 전파되어, 불교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등장하는 색욕 관련 민간 업(業) 설화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처럼 일반인이 등장하는 상사뱀 설화가 생성된 것은 중이 색욕이라는 악업으로 인해 뱀으로 환생한 업(業) 설화가 민간에 전파됨으로써, 이 설화에 대한 향유층이 늘어나 중이 아닌 일반인이 상사뱀이 되는 내용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상사뱀 설화는 불교의 포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더욱 자세히 기술하여 보겠다.

첫째, 수도승들이 불계를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용재총화』 권5의 <보광사 승려>는 아내를 맞아 파계한 중이 죽어 상사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은 뱀이 되어서도 아내를 잊지 못해 찾아와 정을 나눈다. 결국 뱀은 수령에게 파계에 대한 꾸짖음을 듣고 퇴치당한다. 이러한 내용의 설화는 수도승들에게 윤회전생을 주시 지켜 악업을 쌓지 않게 하고, 불도를 닦아 선업을 쌓는 수행에 정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설화 속 중의 행위를 반면교사로 삼아 색욕을 멀리하게 하며, 색욕에 대한 번뇌 때문에 악업을 쌓아 뱀으로 환생하는 일이 혹여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심어주어 수도승들이 더욱 수행에 정진할 수 있게 북돋아 줄 수 있다.

둘째, 대중들에게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손쉽게 이해시켜 포교를 쉽게 하고자, 또한 재미있게 포교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전근대 시대에서 대중들은 글을 잘 알지 못한다. 거기에 불교 경전은 무척 어렵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귀로 들어도 어렵고 글을 안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정진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승도 아닌 일반인은 불교 경전 공부에 정진하기가 쉽지 않으며 생업이 바빠 그럴 시간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려들은 설화를 이용한다. 설화

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통해 어려운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대중들에게 쉽게 풀어 전달할 수 있다. 중이나 일반인이 색욕으로 인해 뱀으로 변하는 설화는 대중들에게 업(業) 사상 및 윤회 사상을 이해하게 만든다. 이렇게 불교의 사상과 교리를 이해한 대중에게 승려는 포교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재미있고 신이한 내용의 설화를 통해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다.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재미있고 신이한 내용의 설화에 흥미가 들게 함으로써, 불교에 관심 갖게 하고 결국에는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불교 신도로 끌어들이고자 상사뱀 설화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더하여 중이 색욕으로 인해 뱀이 되는 내용의 설화는 비종교인이 보기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 포교를 통한 불교 신도 확보를 위해 일반인이 색욕으로 인해 뱀이 되는 내용의 설화를 만들어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사뱀 설화를 전파하여 일반인들도 불도를 닦지 않고 악업을 쌓으면 구렁이로 환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켜, 일반인들을 불교에 귀의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렸을 수도 있다.

셋째, 신이한 내용의 설화를 통해 부처의 영험성을 드높여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도를 확보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청평사 전설에서는 상사뱀을 떼어내기 위한 공주의 가사불사 행위가 나타난다. 이는 부처를 향한 공덕의 행위이다. 부처는 공주의 정성에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상사뱀을 죽인다. 마른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은 매우 신이하다. 거기에 날벼락이 공주를 괴롭히던 상사뱀에게 떨어졌다는 것은 부처의 영험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하여 변이형 전설에서 상사뱀은 신장(神將)들이 밀어내서 회전문을 건너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상사뱀을 불교의 신장들은 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영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승려들은 이 설화를 구연하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고난을 부처의 영험함을 통해 해결했으므로, 공주의 공덕 행위와 같이 대중들도 불교를 믿고 공덕을 쌓으면 기원하는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포교할 수 있다.

이상의 논거들로 상사뱀 설화는 색욕이라는 악업으로 인한 구렁이 환생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불교의 업(業) 설화로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V. 맺음말

불교에서 뱀은 윤회와 업(業)의 상징으로서 전생에서 악업을 많이 쌓은 인간이 주로 환생하는 짐승이다. 이에 불교의 수행자인 중이 죽어 상사뱀이 되는 설화는, 중이 색욕으로 악업을 쌓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불교의 업(業) 설화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의 중이 주인공인 불교 상사뱀 설화는 민간에 전파되어 등장인물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불교와 관련 없는 일반인이 주인공인 민간 상사뱀 설화를 생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성된 상사뱀 설화는 불교의 포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승들이 불계를 어기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상사뱀 설화는 수도승들에게 윤회전생을 주지시켜 색욕과 관련한 악업을 쌓지 않게 하고, 불도를 닦아 선업을 쌓는 수행에 정진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둘째, 대중들에게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손쉽게 이해시켜 포교를 쉽게 하고자, 또한 재미있게 포교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승려들은 대중에게 다소 어려울 법한 불교의 업(業) 사상과 윤회 사상을, 색욕이란 악업으로 상사뱀이 되는 설화를 통해 쉽게 풀어 전달함으로써 포교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재미있고 신이한 내용의 설화를 통해 흥미를 유발함으로써 대중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도록 상사뱀 설화를 이용했을 수 있다.

셋째, 신이한 내용의 설화를 통해 부처의 영험성을 드높여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도를 확보하고자 상사뱀 설화가 생성·활용되었을 수 있다. 승려들은 청평사 전설을 구연하며 불가능했던 상사뱀 퇴치를 부처의 영험함을 통해 해결했으므로, 공주의 공덕 행위와 같이 대중들도 불교를 믿고 공덕을 쌓으면 기원하는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포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상사뱀은 불교의 오욕(五慾) 중에서도 색욕에 의해 악업을 쌓아 환생하는 존재이며, 이로 인해 상사뱀 설화를 불교의 업(業) 설화로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1. 자료

- 성현, 남만성 역, 『용재총화』, 대양서적, 1973.
《한국구비문학대계》 전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
설화제보자, 박석자(여, 83),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로31번길 30, 2016.07.08.
설화제보자, 이도재(남, 51), 세종시 전의면 비암사길 137, 2016.06.04.

2. 단행본

- 강진옥, 『상사뱀』,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1』, 국립민속박물관, 2012.
김용덕, 『청평사』,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 2』, 국립민속박물관, 2012.
윤허용하, 『불교사전』, 동국역경원, 1989.

3. 논문

- 강미정, 『우울증 서사로 보는 <콩쥐팍쥐> · <상사뱀> · <고분지통>』, 『한국고전연구』 제16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65~292면.
_____, 『상사뱀 설화와 영화 <페인티드 베일>의 비교를 통해 본 일방적 사랑의 문제』, 『문학치료연구』 제2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165~197면.
강성숙, 『性 政治로 본 상사뱀 설화-여성형 상사뱀 설화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제39집, 한국고전문학회, 2011, 161~194면.
_____, 『연결불가능한 신체, 상사뱀의 정치지형-파국형 상사뱀 설화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53집, 이화어문학회, 2021, 79~118면.
강진옥, 『상사뱀 설화의 ‘몸 바꾸기’를 통해본 욕망과 규범의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115~148면.
김순재, 『업神의 용어 고찰』, 『어문연구』 제92집, 어문연구학회, 2017, 155~184면.
_____, 『업(業) 설화에 나타난 업神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21, 163~187면.
김용덕, 『淸平寺緣起說話考』, 『한국언어문화』 제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1988, 5~32면.
_____, 『<相思 뱀說話>의 구조분석과 의미연구』, 『한국언어문화』 제1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0, 351~381면.
김정애, 『상사뱀 설화에 대한 반응 양상을 통해 본 문학치료적 공감의 방법과 그 의의』, 『문학치료연구』 제52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85~116면.
송영숙, 『한일 상사뱀(想思蛇) 설화의 비교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0집, 한국일본

문화학회, 2014, 289~313면.

이주라, 「근·현대 상사뱀 모티프의 변화와 한국 공포물의 특징-1930년대와 1960년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제24집 제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6, 173~203면.

이지영, 「그 여자의 상사뱀, 그 남자의 상사뱀」, 『여성문학연구』 제53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194~222면.

조은상, 「성인초기 친밀감 발달과 관련된 설화의 가치-설화 <여우구슬>과 <조월천과 상사뱀>, <신림장군과 처녀>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제64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301~342면.

카이미, 「한·일 상사뱀 설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한양하, 「남성성에 따른 여성 욕망의 수용 양상과 의미-〈상사뱀〉 설화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제34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21, 163~196면.

한양하·장시광, 「상사뱀 설화로 본 남명의 남성성」, 『남명학연구』 제65집,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20, 99~129면.

A Study on the Karma Tales Character of Lovesick Snake Tales

Gim, Sun-jae

In Buddhism, the snake is a symbol of samsara and karma, and it is a animal that is mainly reincarnated by humans who have accumulated a lot of bad karma in a previous life. Accordingly, the tale of a disciplinant Buddhist monk died and became a Lovesick snake may be a Buddhist karma tales to be wary of the Buddhist monk building bad karma with his sexual desire. As the tale of the Buddhism Lovesick snake, the Buddhist monk is a main character, spreads to the people and the range of characters expands, it is possible to create a Lovesick snake tales which the main character is an ordinary person who is not related to Buddhism. The created Lovesick snake tales in this way can also contribute to the mission work of Buddhism. This is described in detail as follows.

First, the Lovesick snake tales may have been created and utilized to inspire the Buddhist monks to be wary of violating the precept. The Lovesick snake tales make Buddhist monks understand the samsara so that they don't build bad karma with their sexual desire, can help the Buddhist monks devote themselves to asceticism that they develop Buddhist doctrines for building good karma.

Second, the Lovesick snake tales may have been created and utilized to facilitate mission work easily of funny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creed and thought of Buddhism. The Buddhist monks can easily propagate the Buddhist karma thought and samsara thought, which is difficult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rough the tales of becoming a Lovesick snake by bad karma, sexual desire. Also, the Lovesick snake tales may have been used to get the public interested in Buddhism by interesting and amazing tales.

Third, the Lovesick snake tales may have been created and utilized to secure the social status of Buddhism by enhancing the miracle of Buddha through amazing tales, and through this, to secure the believers. The Buddhist monks narrated the Cheongpyeongsa Temple legend and solve the impossible eradication of Lovesick

snake through the Buddha's miracle, so it can be propagated that, like the princess's act of Buddhist merit, if the public believes in Buddhism and accumulates Buddhist merit, prayers will be solved.

As mentioned above, the Lovesick snake is a being which is reincarnated by building bad karma to sexual desire of five desire of Buddhism, and for this reason, the Lovesick snake tales can be seen as a Karma Tales of Buddhism.

keywords : Lovesick snake, Lovesick rock, Cheongpyeongsa Temple, Karma, Karma thought, Samsara, Sexual desire, Five desire, Buddhism, *Yongjae's Story Collection*

접수일자: 2022. 3. 31. 심사기간: 2022. 4. 1.~2022. 5. 10. 게재결정: 2022. 5. 10.
--

